

- 농촌마을 소멸에 대응한 정책 과제 -



사람 중심의 정책

- 영유아동을 책임지고 키우는 철학에 근거한 돌봄 정책
- 고령자의 보살핌 받을 권리 보장 돌봄 정책
- 고령자 사망요인 낮추기 위한 응급상황 대비 정책
- 활력있는 마을 공동체 조성



생활인구, 관계 인구 확보 정책

- 주말농장, 한달살이 체험 등으로 생활인구 확보
- 출향민의 관계인구¹⁾ 형성, 고향사랑 기부제의 목적성 기부금 전환



농촌 빈집 및 유휴공간 활용 정책

- 귀농귀촌인 주거공간, 예술인 작업공간, 커뮤니티 공간, 한달살기, 위케이션하우스 등 모델 발굴
- 유휴시설 리모델링으로 주민 생활 및 문화교류공간 조성



행정적·공간적·기능적 재편 정책

- 작은거점(거점마을)²⁾ 발굴 및 기능 강화, 과소고령마을의 재편



도시와 농촌의 소통 정책

- 농촌마을 가치와 매력을 재발견, 알리기(교류 및 유입 유도)
- 사람과 사람, 자연과 사람, 도시와 농촌 소통
- 초등학교 교육 차별화, 농촌유학, 도시유학 추진



우수한 농촌 자연경관 활용 정책

- 농촌의 우수한 경관 자원 활용
- 외부인 위케이션 및 코워킹 공간 조성



농촌마을 정주여건 개선 및 일자리 창출 정책

- 일자리 + 주거단지 + 생활여건 개선 + 공동체 강화
- 고령자 배려 스마트 기술 적용 마을 조성, 고령자 공동홈 조성
- 6차 산업 촉진, 마을 주민 주도의 마을산업(사회적 경제) 육성
- 로컬크리에이터, 지역혁신가, 사회적 기업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



주민자치강화와 마을만들기 사업의 지속화 정책

- 마을 자치 강화(주민 스스로 살고 싶은 마을 만들기)
- 단계별 마을 사업 지속적 추진



인식개선 및 조직 기반 확충 정책

- 마을 소멸에 대한 공감대 형성
- 사회적 기업 조직 운영, 민간주체 활동 활성화

1) 실제 (농촌)지역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어떤 형태로든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

2) 마을단위(1개 또는 복수의 행정리)에서 특정한 서비스 기능이 집적되어 있어 거점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마을(지역)

충남 정책지도 2024-01 통권 41호

마을소멸지수를 적용한 농촌마을(행정리) 소멸 실태 및 정책과제

윤정미 선임연구위원



01 문제의식

- 우리나라는 인구 감소, 저출생, 고령화, OECD 합계출산율 최하로 지방소멸 위기에 처해있음
- 지방소멸 진단을 위한 대표적 방법은 지방소멸위험지수(이하 지방소멸지수)가 사용되고 있으나, 지방소멸지수를 농촌마을(행정리 차원)에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지방소멸지수를 농촌마을에 적용했을 때 거의 모든 마을이 '소멸위험지역'으로 도출되어(90.5%) 소멸 대응 정책 추진을 위한 의사결정 지원 시 많은 어려움이 있음
-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농촌마을에 적용 가능한 마을소멸지수를 개발함(윤정미, 2021)
- 지방소멸 이전에 농촌마을 소멸에 대한 진단과 대응 방안이 시급히 진행되어야 함
- 이에 충남도 행정리 단위 농촌마을에 마을소멸지수를 적용하여 실태를 진단하고 마을소멸 대응 방안을 제시함

02 마을소멸지수란?

- ◎ 마을소멸지수는 지방소멸지수를 농촌마을 공간 단위에 적용하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윤정미(2021)¹⁾ 연구에서 개발된 지표
- ◎ 개발된 마을소멸지수는 ① 자연적 인구 증감과 ② 사회적 인구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③ 마을소멸속도 조절(마을소멸 현 상태 진단)하는 지표를 포함
 - 70세 이상 인구 수, 20~44세 여성 인구 수, 전입 인구 수, 인구 가중치 지표를 활용하여 지수 개발
 - 기존의 지방소멸지수는 '65세 이상 고령인구 수 대비 20~39세 여성인구 수'로 자연적 인구 증감 관련 지표만 사용
- ◎ 마을소멸 단계를 6개로 구분(마을소멸 고위기, 마을소멸 위기, 마을소멸 진입, 마을소멸 보통, 마을소멸 낮음, 마을소멸 매우 낮음)

마을소멸지수

20~44세 여성 인구 수 + 전입인구수

X 인구 가중치

70세 이상 인구 수

- ① 70세 이상 인구 수 : 자연적 인구 감소 영향 요인
- ① 20~44세 여성 인구 수 : 자연적 인구 증가 영향 요인
- ② 전입 인구 수 : 사회적 인구 증가 영향 요인
- ③ 인구 가중치 : 마을소멸속도 조절, 마을 현 상태 진단 지표

인구 구간	가중치
50명 미만	0.5
50~100명	1
100~200명	1.5
200~500명	2
500명 이상	2.5

마을소멸지수 단계

구분	범례	지수
소멸위기마을	마을소멸 고위기	0.2 미만
	마을소멸 위기	0.2~0.5
마을소멸 진입		0.5~1.0
마을소멸 보통		1.0~1.5
마을소멸 낮음		1.5~2.0
마을소멸 매우 낮음		2.0 이상

※ 지방소멸위험지수(이상호, 2018)²⁾

- 65세 이상 고령인구 수 대비 20~39세 여성인구 수

$$\text{지방 소멸지수} = \frac{\text{20~39세 여성 인구 수} - \text{자연적 인구 증가 영향 요인} - \text{출산 관련 지표}}{\text{65세 이상 인구 수} - \text{자연적 인구 감소 영향 요인} - \text{사망 관련 지표}}$$

지방소멸지수 단계

구분	범례	지수
소멸고위험	소멸고위험	0.2 미만
	소멸위험진입	0.2~0.5
주의단계		1.0~1.5
소멸위험보통		1.5~2.0
소멸위험 매우 낮음		2.0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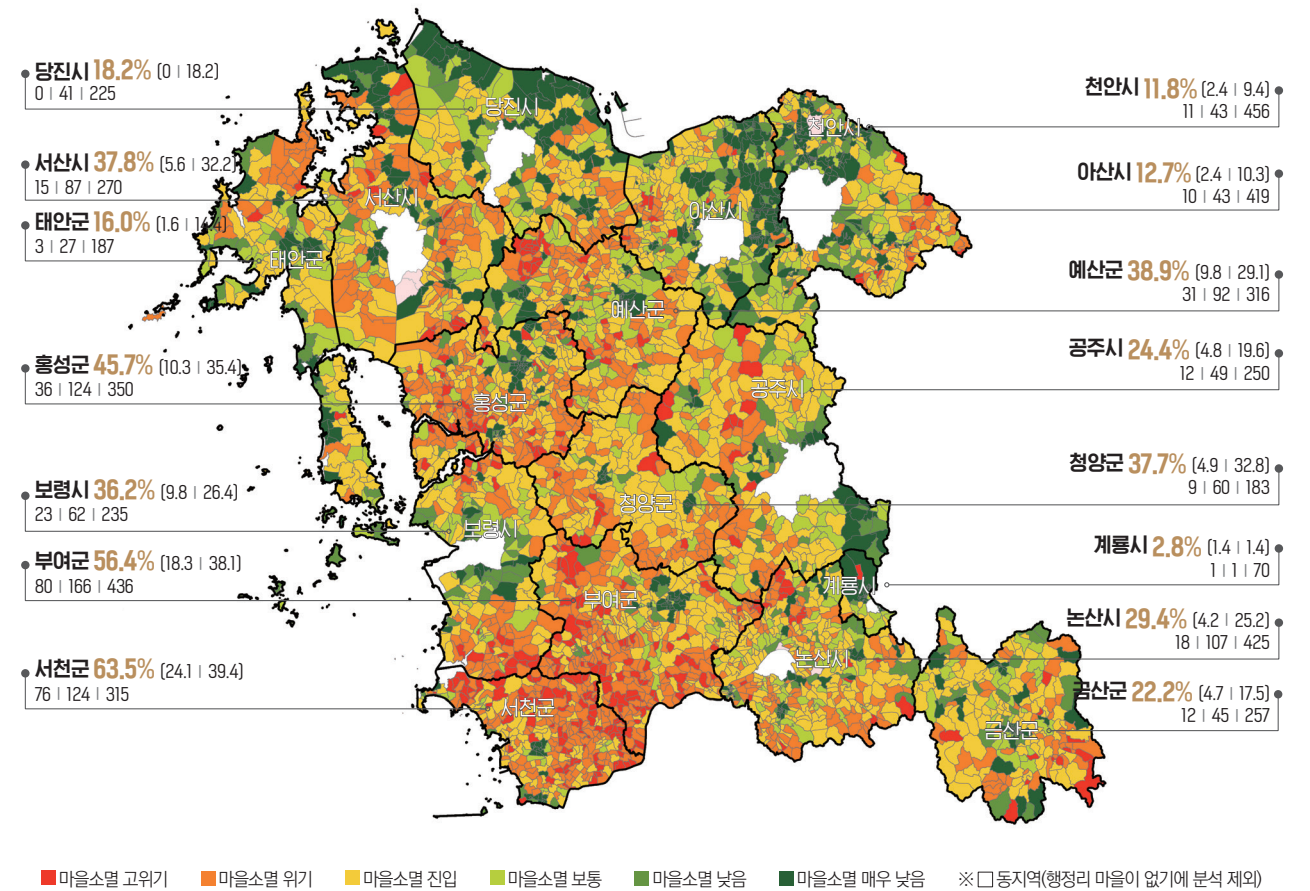
참고자료

- 1) 윤정미, 2021, 저출생·고령화에 대응한 농어촌 행정리소멸지수 개발, 충남연구원
- 2) 이상호, 한국의 지방소멸 2018, 한국고용정보원, p.9
- 3) 윤정미 외, 2023 충남 마을소멸 실태 분석 및 대응 방안 - 청양군을 대상으로, 충남연구원
- 4) 윤정미, 2024, 지방소멸지수와의 비교 연구를 통한 마을소멸지수의 적용 가능성 검토 연구, 한국농촌계획학회

03 마을소멸지수를 적용한 충남 농촌마을 소멸 실태

● 시군명 소멸위기마을 비중 (마을소멸 고위기 비중 | 마을소멸 위기 비중)

마을소멸 고위기 행정리 수 | 마을소멸 위기 행정리 수 | 총 행정리 수



◎ 충남농촌마을에 '마을소멸지수' 적용 결과 '소멸위기마을' 32.0%(1,408개, 총 행정리 수 4,394개) 도출

- 마을소멸 고위기 7.67%(337개), 마을소멸 위기 24.37%(1,071개)

◎ '지방소멸지수' 보다 '마을소멸지수' 적용 시 변별력 있는 농촌마을소멸 실태 진단 가능

- '지방소멸지수'를 농촌마을에 적용한 결과 '소멸위험지역' 90.5%(소멸고위험 3,124개, 71.1% & 소멸위험진입 851개, 19.4%)로 거의 모든 마을이 '소멸위험지역'이기에 정책의사결정을 위한 변별력이 없음

◎ 서천군과 부여군 농촌마을 소멸위기마을(마을소멸 고위기 & 마을소멸 위기) 비중 높음

- '소멸위기마을' 서천군 63.5%, 부여군 56.4%, 홍성군 45.7% 순으로 도출
- '마을소멸 고위기' 서천군 24.1%, 부여군 18.3%, 홍성군 10.3%, 보령시와 예산군 9.8%
- '마을소멸 위기' 서천군 39.4%, 부여군 38.1%, 홍성군 35.4%, 청양군 32.8%, 서산시 32.2%

